

2024 Vol. 23

ISSUE & FOCUS

전국연구개발지원단

Regional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Contents

04

01

지역과학기술 COLUMN

지역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

09

02

연구개발지원단 NEWS

-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 2.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 3.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43

03

R&D 성공사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추진

48

04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현황

-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01 지역과학기술 칼럼 COLUMN

지역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
서울테크노파크(서울연구개발지원단)

지역과학기술 칼럼(COLUMN)

지역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

✍ 서울테크노파크(서울연구개발지원단) 이은아 주임연구원

지난해 11월 오픈AI가 챗GPT를 세상에 공개한 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생성형 AI는 대화,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준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AI에게 특정 입력(프롬프트)을 통해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맞춤형 결과를 만들어준다. 출시 1년 가까이 됐지만 생성형 AI의 열풍은 아직 식을 줄 모르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생성형 AI를 통합한 제품과 서비스 출시 소식도 연이어 들려온다. 공공행정에 정보기술(IT)도입이 늦어 아날로그 공화국이라 불렸던 일본도 챗GPT를 활용해 국회 답변서 초안 작성, 회의록 작성, 정부 통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MS와 기술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싱가포르를 AI를 이용해 시민 질문에 24시간 내내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생성형 AI는 도구 상자에 불과하다. 특히, 생성형 AI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낮거나 편향된 경우, 모델이 생성하는 결과물도 품질이 낮을 수 있다. 말하자면 데이터는 마치 창의적인 요리사의 요리 재료와 같다.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신선한 재료가 필요하고, 부패된 재료로는 아무리 요리사의 실력이 좋아도 요리가 불가능하듯이 생성형 인공지능 역시 고품질의 풍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IT분야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매번 나오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따라서 데이터는 생성형 AI의 핵심이자 핵심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질과 양이 모델의 성능과 효과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므로, 데이터 확보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불량 데이터의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위한 데이터 마련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될 것이다. 증거기반정책은 정책학을 포함한 여러 공공정책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엄격하게 검증된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적인 결정을 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며, 디지털 기반에서 과학적으로 생산된 데이터(정부통계, 빅데이터 등)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기반의 정책을 추진코자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 및 지역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것도 증거 기반 R&D 정책결정을 위한 일환이다. 그렇다면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결과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선적으로 R&D 사업 조사 대상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는 일반적으로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로 지칭되는 OECD 권고기준을 따른다. OECD의 R&D의 정의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R&D 사업을 분류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이에 R&D 사업 판단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을 연구개발(R&D) 사업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24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OECD 권고기준과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마저도 예산 배분 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소 인위적인 분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연구개발활동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개발활동으로서의 적격성 판단이 쉽지 않으며, 해당 예산 소요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으로의 분류의 적절성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정되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비교가 가능한 신뢰도 있는 기초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동일한 기준의 R&D 사업 조사 대상 선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지역별로 각각의 R&D 사업의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해왔지만 지역 간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나 담당인력이 바뀌었을 때 인위적인 분류가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경우에는 입력 매뉴얼 등이 갖춰져 있으며, 조사·분석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한다. 물론 지역연구개발지원단도 비슷하게 조사·분석 계획 및 작성 방안에 대한 설명회 등을 실시한다. 하지만 2023년도 지역 R&D 사업 조사 예정 목록을 살펴봤을 때, 서울과 대전은 조사·분석 대상 사업이 6개뿐인데 강원은 31개, 충북은 41개나 된다. 물론 각 지자체별로 예산서 상의 사업규모나 구성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해당 수치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사업들이 조사되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기재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연구개발기반조성(테크노파크, 신기술보육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등)을 연구개발 예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이 전부 조사되고 있지도 않다. 어찌보면 연구개발이 주목적인 연구기관지원 예산은 포함하되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협회 및 단체활동은 제외하게 되어 있어 테크노파크 관련 사업에서는 설립이나 시설·장비 관련된 사업, 연구지원 등에 대한 사업만 따로 분리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헷갈리기도 한다. 이러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들이 다 함께 모여앉아서 실질적으로 원재료인 R&D 사업 목록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시계열적인 분석 등을 위해서 이전년도와 사업을 크게 바꾸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수 있고, 분석 대상이 달라지면 정책결정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통일성, 당위성, 논리성을 갖춘 조사·분석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분석 대상이 바뀌는 그 해에는 좀 힘들더라도 추후 각 지역별로도 비교가 가능한 더 신뢰도 있는 정책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된다. 레시피는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한다. 재료와 조리과정이 정확하게 안내된 레시피를 따라갈 때 맛과 향을 보장할 수 있듯이 정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각 지역연구개발지원단이 비교가능한 동일한 산출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지역마다 해당 레시피를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요리를 개선하고 변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들의 생산체계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다량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정책 및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 R&D 조사 항목에는 국가연구개발조사 항목과 동일하게 연구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도 있고, 연구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문기관이나 연구개발지원단에서 검증 또는 생성해야 하는 자료도 있다. 국가연구개발조사에서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 미래유망신기술(6T), 중점과학기술 등의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 예측 및 기술 수준 평가 수행, 과학기술 정보의 관리·유통 등을 위한 과학기술 표준분류틀로 2002년 최초 제정되어 2008년 전면 개정 이후 4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쳤다. 기술분류 세분화, 연구책임자 국적 삭제 등 조사항목 정비를 통해 과학기술발전 트렌드 및 국내외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고려하며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적합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를 추천해주는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 탑재되는 등 변경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대하여 연구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추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추가적으로 지역 R&D 사업 조사항목에는 국가주력산업과 혁신성장동력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주력산업과 혁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분류는 어찌보면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하지 않아서 분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구자로부터 수집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조사항목의 생산성과 신뢰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성장동력산업은 구성기술 기준 분류(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등), 서비스분야 기준 분류(스마트시티, 지능형 로봇 등) 등이 섞여 있어 실질적으로 연구자가 중점을 두는 연구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해당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분류를 정확하게 하기 힘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내 자율주행차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를 키워드만 보고 분류를 한다면 '빅데이터'로도, '스마트시티'로도, '자율주행차'로도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럴 때 새로운 항목(국가주력산업, 혁신성장동력산업) 분류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연구자가 작성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 미래유망신기술(6T), 중점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호환/연계 분류표이다. 예를 들어 혁신성장동력산업 분류코드 중 하나인 '지능형 로봇(I09)'의 경우 과학기술표준분류의 '로봇/자동화기계(EA05)'와 중점과학기술코드의 '스마트 제조로봇 기술(050403)'에 해당하는 과제를 '지능형 로봇(I09)' 코드로 분류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존의 조사항목으로 새로운 조사항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다. 융합연구가 많아지고,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로 조사해야 하는 새로운 항목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 '어떤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일 것이다. 많은 문항을 포함한 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정확하거나 마구잡이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항목을 맹목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닌, 대체 또는 호환/연계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항목 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산체계를 구축하면 조사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안내자료 마련, 교육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지역 R&D 통계조사 데이터 관련 이슈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도 하고 이가 지역 조사에만 국한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인 것처럼 지역 R&D 통계조사가 증거 기반 R&D 정책 결정을 위한 제대로 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데이터 수집부터 관리, 품질 향상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작지만 큰 노력을 통하여 맛깔난 데이터 확보 및 분석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생성형 AI가 작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만큼 성숙해지도록 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지역 R&D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더 새로운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작성하면서 챗GPT를 일부 활용함



02 연구개발지원단 NEWS

-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 2.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 3.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R&D 혁신성장 동력발굴을 위한 혁신기관 워크숍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R&D 혁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기관 워크숍>이 11월 30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혁신기관 간 '23년도 성과 공유를 비롯하여 '24년도 신규 사업 및 공모 추진 과제에 대한 연계 협력 기회를 마련하고, '24년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세부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R&D 기획뱅크 & 지역주도 R&D 마중물 지원』에 대한 사전 수요 발굴을 목적으로 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기초지자체 관련 부처 공무원, 지역내 25개 혁신 기관 담당자 등 총 37명이 참석한 본 워크숍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기관 현황 공유, '23-'24년도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발표, 혁신기관 간 신규 사업 발굴 협력 방안 논의, '24년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핵심사업 추진 계획 소개,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 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자유 토론 및 네트워킹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혁신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기로 다짐하였고,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지역 산업 R&D 공동 발굴 및 기획을 통한 발전 방향이 모색되고 지역 과학 산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 미래차 전환 및 자율주행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경기도 자율주행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와 경기도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정책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12월 7일(수)에 함께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각 연구 주제의 연구 결과 발표와 기업 지원 방안, 정책적 수요,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스타트업 지원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지속적으로 경기도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12월 14일(목)에 개최하였다.

본 연구는 광교테크노밸리를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 바이오 지원시설 개발 방향 모색을 위해 수행된 연구로, 이날 진행된 최종보고회에는 장기간 방치된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를 바이오스타트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경기도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 동향분석플랫폼 통합세미나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2022년부터 지역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미래성장동력 신사업 발굴·기획의 시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동향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과학기술 분야는 대구시 미래신산업과,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지역거점 과학기술 중점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6개 분야(▲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로봇, ▲ICT·SW, ▲에너지(이차전지), ▲과학기술정책)로 선정하였으며, 전문성 높은 동향분석 플랫폼 운영을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전문가가 외부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지역 동향분석플랫폼 통합세미나에서는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통해 현안·이슈 등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발표 관련 내용 및 지역 혁신방향에 대해 전문위원·내부연구원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전문성 높은 동향 정보 수집하고 정책·사업 발굴·기획에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대전연구개발지원단



- 정부는 대전과 전남, 경남을 우주산업육성 및 성장 거점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
- 대전은 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대전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23.12)
- 국내 우주산업 성장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대전시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구체화 수행
- 대전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추진 전략 20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대전시 우주산업육성 비전 선포식(23.11.29)에 활용
- 향후 우주산업분야 기술이전·창업 기업유치 등을 통한 대전형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 국내·외 창업 유관기관과 협력·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상생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806>

보도자료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1129_0002538819

제12회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1월 제12회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시 과학기술 정책 등의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번에 보고된 안건은 제2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3년 시행계획, 2024년 부산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2024년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기획 유치 지원사업 추진경과 등 총 5개에 대해 보고하여, 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부산에 적합한 산업·기술을 찾아내는 정책연구, 사업기획 방향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며, 부산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거버넌스인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지역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평가하는 조직으로써 체계화된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도시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노원 의과학테크노밸리 구상을 위한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

서울연구개발지원단



노원 의과학테크노밸리 구상을 위한 노원구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지난 30일 개최하였다.

노원 의과학테크노밸리 구상은 노원구의 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라 의학원을 비롯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 테크노파크 등 인접한 의과학 기관이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첨단 바이오 산업기술을 육성·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주최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노파크, 고용진 국회의원실에서 참석해 지난해 3월 '한전연수원 부지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 개최에 이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의과학테크노밸리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의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원구의 한전연수원 부지,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산학연병이 함께 모여 공동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과학문화타운 조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및 난치성질환 치료법 개발 등 국가 주도의 첨단 의료기술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진경 원장은 "노원구의 우수한 기관들이 함께 뜻을 모아 노원 의과학테크노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 동북권을 넘어 국가 의과학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함께한 고용진 의원은 "한전의 부지 매각 결정을 통해 한전연수원 부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이 구체화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1310022>

세종시 양자·사이버보안 산업 육성...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세종시가 올해 양자·사이버보안 등 미래신산업 육성을 발판으로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9일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남궁 국장은 전략 산업 기반의 미래신산업 집중 육성 관련 “세종시와 KAIST-MIT간 킴 계절학과와 한·미·일 양자분야 국제 연구교류를 통해 양자전문가를 양성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보안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신산업 분야 전환과 확장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산업도 다각화한다. 여기엔 ‘충청권 도심항공교통(UAM)’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지역시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전력한다. 또 ‘타깃기업’의 선제적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전략TF’도 운영한다.

아울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상반기 중 착공하고 300억원 규모의 ‘미래전략펀드’를 조성 투자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한다. 우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거리’를 조성하고 ‘세종 라이온 타운’을 운영, 전주지역 창업교육을 지원해 소상공인 양성에도 힘쓴다.

아울러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100억원 늘린 3500억원을 운용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 또 세종전통시장과 조치원 중심가로 일원을 특색있는 대표 상권으로 조성키위해 5년간 60억원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농업인 지원 강화와 경영 안전망 구축 ▲지역 먹거리 확대, 여름 대표 복숭아축제 육성 ▲시민 공감 동물복지, 청정축산 환경 조성 등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남궁호 국장은 올해 ‘미래전략산업 개편’ 결과도 내놓았다. 그는 “15개 후보 산업 선정과 10개 유망산업 도출을 통해 최종, 주력 고도화 산업 2개, 서비스·ICT융합 산업 3개, 미래혁신기술 산업 1개 등 미래전략산업을 도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단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까지 37개 과제에 1704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세종시는 생산유발효과 2,901억원, 부가치 유발효과 1,246억원, 일자리 창출 1,998명을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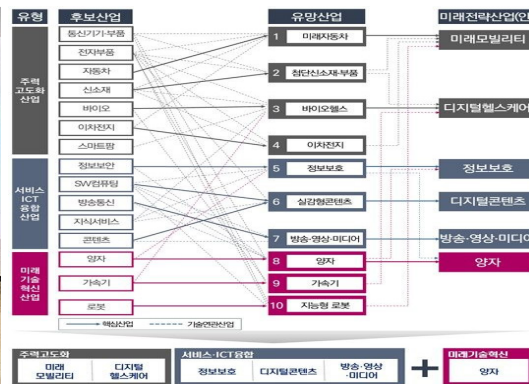
남궁호 국장은 “2024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과 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미래전략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 자족 경제 도시 세종’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news1.kr/articles/5265415>

보도자료 세종시청 - 보도자료



*출처 : [뉴스1=세종]설명하는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2024.01.09. ssong1007@news1.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출처 : [뉴스1=세종]미래전략산업 도출 체계도(사진=세종시)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진흥위 개최... “과학기술로 지역혁신 도모”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연지단은 12월 19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과학기술 진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제6차 울산시 과학 기술진흥 종합계획’과 ‘2024년 울산 지방과학 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심의의결 했다.

과학 기술진흥종합계획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의 과학기술 비전과 지역혁신 실현을 담은 중장기적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위대한 울산’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산업 특성과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분석을 통해 4대 전략, 12대 중점과제, 29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4대 전략 및 12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과학 기술진흥 시행계획은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재편, 과학기술 정책기획 기능 및 역량 강화, 지역의 교육, 연구와 산업 간 간극 해소 등 지원체계 혁신 등 8개 분야 90개 사업을 반영했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제6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실천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지역 차원의 임무 달성과 미래 성장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5265415>

전남TP, 핵심뿌리기술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 이하 전남TP)는 지난 25일, 전남 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전남지역 뿌리기술을 비롯해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사)전남뿌리기업협회, 전남 뿌리기업협의회, 광양혁신산업단협의회, 삼호중공업 협력사업협의회, 대불알루미늄선박협동조합 등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본 사업 예타보고서 기획자이자 발표자였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KEIT) 이병현 뿌리기술PD는 ‘뿌리산업의 정의 및 현황’부터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평을 얻었다.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사업’은 2개 이상의 수요산업에 적용 가능한 15대 공통 핵심 뿌리기술 분야에 대해 향후 6년간(‘25~’30년) 집중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소재전환기술, 공정단축기술, 에너지·환경기술 등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뿌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공통·핵심기술은 타기관에 이전(기술이전형)하거나 개발주체 간 공유(기술공유형)를 통해 기술개발의 결과가 뿌리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원장은 “전남의 뿌리기업들이 고부가가치 공정혁신이 가능한 뿌리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전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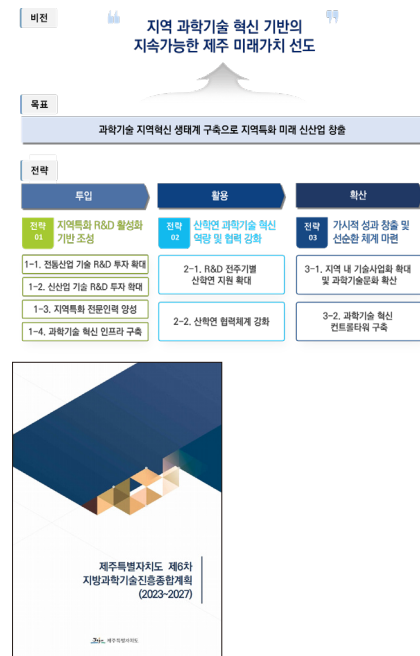
한편, 전남테크노파크는 급변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설명회와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131억원(국비848억원) 규모로 2023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참고사이트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39>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제주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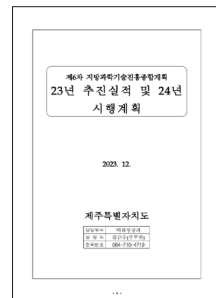
지난 2023년,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근거하여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 중앙정부 및 민선 8기 지자체의 과학기술 방향에 맞춰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중점과제를 발굴하였다.

도출된 세 개의 전략(①지역특화 R&D 활성화 기반 조성 ②산학연 과학기술 혁신역량 및 협력 강화 ③가시적 성과 창출 및 선순환 체계 마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발굴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예산투자를 시행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기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과학기술진흥 2024년 시행계획 수립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난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반 2023년 투자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분야 사업의 예산은 2023년 집행실적 대비 약 40%가 증가하였으나, 2023년 예산 대비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준 중점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지역특화 R&D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세부적으로는 전통산업·기술에 대한 투자는 감소, 신산업·기술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책 수립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2. 지역 맞춤형 R&D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주도 R&D 마중물 과제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2023년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지역주도 R&D 마중물 과제」 최종평가위원회>가 지난 1월 17일(수) 커먼즈필드(춘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평가는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연구계획 대비 성과현황 및 연구실적, 연구결과의 지역산업 내 활용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 도출의 적절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주)커넥티드인(대표 황상원)이 수행한 <지역사회 기반 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본 과제에 대해서는 '24년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지역혁신기관 네트워킹 시 지역주도 R&D 우수 사례 발표가 추진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R&D 우수사례 발굴에 활용되어 간접적인 홍보가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10개 과제 모두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 종료 후 2년(2024~2025)간 성과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이 주관한 이번 2023년도 지역주도 R&D 마중물 과제 지원사업은 총 8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0개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본 지원사업을 통해 SCIE급 논문 3건, 특허 6건, 기술사업화 5건, 고용 21명 및 공모사업연계 5건 등의 성과가 창출되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재)경남테크노파크-텔레픽스(주), 경남 우주산업 발전 및 위성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와 텔레픽스*(대표 조성익)는 5일, 경남TP 항공우주본부에서 경남 우주산업 발전과 위성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텔레픽스: 전자광학 탑재체, Si기반 위성정보 시스템 개발 및 공급 업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활성화△경남 우주산업 발전 및 집적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내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력 있고 성장 가능한 지역 내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주산업 진입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 유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394억원 규모로 추진 계획 중인 위성개발 혁신센터 구축사업, 사천시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연계한 (초)소형 위성 개발지원 및 기업 입주지원 등을 통해 우주 스타트업 육성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경남TP 옥주선 항공우주본부장은 “텔레픽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위성스타트업지역 내 유치 및 위성지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TP, 방산혁신클러스터 시험지원사업 기술교류회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16일, 소노캄 거제에서 「방산클러스터 2023년 방산중소벤처기업 시험지원사업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에는 사업주관기관인 경남TP, 체계기업인 현대로템(주),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방산시험협력기관인 KTR, KOMERI, KCL 및 경남 인근 방산시험 전문기관 등 방산 시험평가 관련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동향 및 방산시험의 최신 트렌드 분석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자기 적합성, 환경 신뢰성 시험의 기술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한, 현대로템(주),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각각 기동화화력, 해양무인, 공중무인 체계시험의 기술동향 및 개발품의 시험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경남TP 노동우 방위산업본부장은 “방위산업 R&D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시험평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산시험평가 관련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겠다”며, “방산 시험 규격 확대, 기술지원 등 다양한 시험평가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정책연구회 운영

광주연구개발지원단



24년 1월 광주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회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4개년('24~'27)간의 비전 및 목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파트2)을 수립하였다.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된 과학기술혁신계획 중 지역 과학기술의 비전 및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이 담긴 파트2를 수립하기 위해 지역 내 클러스터, 인재양성, 창업 등 총 7개 분야의 지역 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정책연구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7개 분야별 세부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총 22개의 세부실행 계획을 도출하였으며, 취합된 실행계획과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한 후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시는 올해 수립한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4년간 과학기술과 관련한 지역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실행계획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지원, R&D 발굴기획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중앙 및 지역 R&D과제 기획유치 지원사업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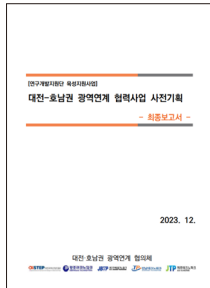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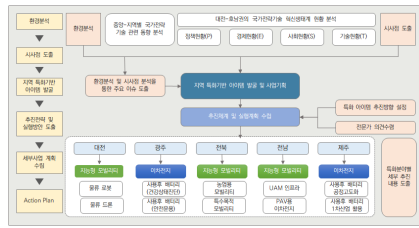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주도 R&D기획역량을 강화하고 대구 5대신산업(UAM, ABB 등)을 주도할 R&D과제를 발굴하고자 '2023년 중앙 및 지역R&D과제 기획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9개 신규과제의 기획보고서 도출을 지원하였다.

스타트업 중심의 첫걸음 과제는 매칭된 전담PM이 수시 모니터링하며 집중지원하고 과제별 기획연구회 운영을 통해 도출한 기획보고서는 전담기관 기획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완성도를 높여 차년도 중앙 및 지역R&D 연구계획서 제출을 준비중이다.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18년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23년 R&D수주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개 기업(기관)이 13개 사업에서 국비 11,556백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호남권 광역 연계 공동사업 사전기획

대전연구개발지원단



- 지역주도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역 간 연대 기반의 지역 혁신과 국가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광역연계 협력 기획 사업 추진
- 대전·호남권을 중심으로 전략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자원간 교류를 추진하고 협력 아이템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과 세부 전략 수립
- 지역별 핵심전략산업과 중점기술 중심의 광역연계 사업 기획 및 사회문제 해결 R&D 기획 등을 통한 지역 공동 대응 전략 도출
- 대전·호남권(전북·전남·광주·제주)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 전략산업의 상생·협력벨트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
- 지역 특화 기반 아이템 발굴로 '첨단모빌리티' 분야 선정, 특화 아이템 발굴 및 지역 협력 모델 마련
- 향후 광역연계 정부사업 공모 및 기획 제안으로 지자체 간 협력 사업의 모범 사례 확산 시도

중장기 지역현안해결 R&D기획 통합교류회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이하 부산연지단)은 12월 12일 부산에서 지역내 산·학·연 R&D기획 연구그룹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지역현안해결 R&D기획 통합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통합교류회에서는 '23년 연구그룹별 신규 R&D기획 현황 공유 및 분야별 산·학·연 상호 네트워크 교류의 장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부산연지단에서는 '23년 6월부터 지역의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가 직면한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R&D기획 연구그룹 구성, 기획보고서 도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전력반도체, 수전해, 수소화합장비, 이차전지재활용 분야에 대한 R&D기획보고서가 도출되었으며, 통합교류회를 통해 기획내용을 공유하고 분야별 교류 및 연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그룹별 도출된 기획보고서는 차년도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내 사업유치 프로세스와 연계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제정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지난해 5월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는 사단법인 한국전기차 배터리협회, 한양대학교 한양에너지환경연구원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R&D사업 기획에 대해 논의하였고, 10월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고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동년 8월 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8월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하 전기차 배터리 육성 조례안)'이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23.12.15)에서 가결되었고, 12월29일에 서울특별시 조례 제8997호로 제정·시행되었다. 본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으로 하여금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산업기술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경비 지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산학연과 공동 연구 개발 추진, 기술이전 상품화에 노력 등이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 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기반 조성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도자료 <https://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96896>

2023년 울산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R&D기획 지원 운영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의 R&D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울산의 미래신성장 산업을 주도할 R&D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2월, 울산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내 R&D기획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 2개월간의 지역기업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신규 8개 과제의 기획보고서 도출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발굴된 신규과제들을 토대로 보완 개발하여 차년도 중앙 및 울산지역 R&D사업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수소산업 육성 포럼 개최

전남연구개발지원단



광양시가 주최하고 (재)전남테크노파크, (사)1.5°C포럼, 한국과학기술단체 광주전남지역연합회가 주관하여 광양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업업체·학계·공공기관 등 수소 관련 전문가들과 수소에 관심있는 시민·기업체·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수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고, 유관기관·단체·시민·공무원 등 150여 명 좌석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참석해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포럼은 ‘수소도시 육성을 위한 광양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분야별 수소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광주과학기술원 박찬호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한국에너지공과대 박진호 부총장의 ▲지속 가능 탄소

중립을 향한 수소산업 전략에 관한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수소경제 정책 추진 방향(산업통상자원부 최현상 사무관) ▲수소 에너지 R&D 지원 방향(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성욱 PD)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호준 책임) ▲포스코그룹 수소 사업 전략(포스코홀딩스(주) 고도현 부장) ▲수소안전시스템 구축·활용 및 발전 방향(한국가스기술공사 최충현 부장)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광양시 신산업과 이진호 팀장)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현상 사무관은 수소 모빌리티(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인프라 구축, 청정수소의 발전 비중 증가 등 앞으로의 수소 정책과 수소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나아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남석우 책임은 국외에서는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수소 생산 기술 개발·실증을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촉매 및 분리막 반응기 기술 개발과 무탄소 연료전지 발전 실증, 수소생산용 가압형 암모니아 분해반응기 개발 등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개발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활용하여 광양 포스코에서 제철 공정 중 사용되는 암모니아 추출 수소를 사용하는 공정을 적용하는 것과 기존의 LNG 기반의 발전 시스템에 암모니아를 활용 또는 직접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활용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김태균 전남남도의회 부의장은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탄소배출이 많은 광양만권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소 산업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약속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수소생산과 연계 산업 유치까지 확장하면 탄소중립 실현과 동시에 시민들의 공간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사이트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277>

신규 R&D사업 5건 발굴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출기관	제출분야	제출분야	제출분야	제출분야
제주대학교	신소재	신소재	신소재	신소재
제주대학교	신소재	신소재	신소재	신소재
제주대학교	신소재	신소재	신소재	신소재
제주대학교	신소재	신소재	신소재	신소재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도내 혁신기관 및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R&D사업 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였다.

발굴된 R&D사업은 ▲위치기반 서비스와 연계한 AI 스피커 제주 여행가이드 및 광고플랫폼 개발 ▲Chat GPT를 이용한 메타버스 제주 스마트 투어 시스템 개발 ▲식물유래 청정바이오 원료의 대량생산 체계 개발 및 기술 보급 ▲해양 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MW급 대용량 해양에너지 활용기술 개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상온상압에서의 안전한 수소저장기술 등 총 5건이다.

제주연지단은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선정하여 지역 맞춤형 R&D과제를 기획하고 지역기업이 중앙 및 지자체 R&D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제23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애포럼) 개최

-(부재) 충청남도 과학기술 전략별 발전 방향 -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도는 '23년 11월 1일, 충청남도 주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주최로 충남도서관에서 ‘충남 과학기술 전략별 발전 방향’에 대한 온·오프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KAIST 오혜연 인공지능센터장의 기조강연 ‘생성형 AI의 한계와 미래’를 시작으로, ‘충남 과학기술 전략별 발전 방향 및 현안’, ‘과학기술 5대 전략별 중점사업’, 총 두 개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본 포럼을 위해 충남연구원은 도내 과학기술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12대 전략기술 및 충남도 정책, 인프라 매칭을 통한 충남도 과학기술 5대 전략별 14개 중점분야를 도출하고, 관련 49개 사업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제조산업 과학기술 혁신, △6차 산업·바이오 헬스 과학기술 고도화, △디지털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실증기술 선도, △과학기술 성장 인프라 구축으로, 도내 각 전략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국내·외 발전현황, 충남도 발전방향을 소개했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투자와 지원 필요하며, 본 포럼에서 발표된 ‘충청남도 5개의 중점분야’에 대해 차년도부터 산·학·연 각 사업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과 과학기술 간 연계 방향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https://www.youtube.com/live/OniGXSI54hk?si=uLM0nZGmLfQGPTR>



충북도, 클라우드-인공지능 중심 CAB산업 육성 협약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청북도는 18일 블랙스톤 벨포레(충북 증평)에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청주대학교·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주)구루미와 「클라우드-인공지능 중심 CAB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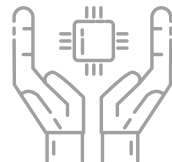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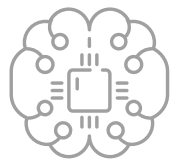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김상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 이웅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기업사업 총괄 부문장, 이량혁 (주)구루미 대표가 참석해 클라우드-인공지능 중심 CAB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지역 내 기업 및 창업기업의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으로 충북 클라우드·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6억9천만원의 과기부 지원을 받아 충북, 충남, 세종, 대전 등 중부권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의 재직자,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을 청주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이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하여 충북지역 내 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0953>



충북 iDX 협업지원센터, AI 기술검증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DX) 도와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 산업 디지털 전환(DX) 협업지원센터(이하 ‘충북 iDX 협업지원센터’)는 ‘산업 AI 전처리·내재화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3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 AI 전처리·내재화 컨설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개소한 ‘충북 iDX 협업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다.

AI에 투자하거나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으나 비용 부담 및 규모의 한계 등으로 디지털 전환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I 과제를 선정하고 그 효과와 구현 가능성에 대한 AI 기술 성공 가능성을 검증해주는 컨설팅이다.

지난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강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 DX 수준진단을 통해 각 기업이 직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지능화 과제를 도출하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AI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성까지 제시하였다.

▲‘지에스티산업’은 AI 기반 도면 및 프로젝트 검색 모델 도입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기존 축적된 도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 이력을 검색하여 신규 제품 수주 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최적 도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도면을 하나씩 기존 도면과 확인하면서 찾는 대신 1분 안에 검색을 완료하여 작업시간을 효율화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 95%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솔테크닉스’는 태양광 모듈 생산 E/L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종류 중 검출량이 가장 많은 불량형태(미슬더, 크랙, 이물 등)를 판별하는 불량 검출 AI비전 검사 자동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불량 검사 공정 AI 자동화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95% 이상의 검사 정확도 및 작업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유희남 과학기술정책과장은 “DX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 기반이 부족하며 현실적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디지털 역량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 iDX 협업지원센터’는 지난 10월 개소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내 사무실, 상담룸, 오픈랩 등 사무공간을 갖추고 5년간 44.2억원(국비 19.2, 도비 25)을 지원받아 충북의 주력산업인 BIT(Biohealth, Intelligent IT parts, Transport machine material parts) 산업 중심으로 충북 DX 얼라이언스 운영 및 선도과제 발굴,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도자료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131010009996>

3. R&D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항공 산업 육성 워크숍(워킹그룹)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항공 산업 육성 워크숍>이 '23년 11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강원 세라믹원료 소재 산업의 항공 산업 확장과 강원 미래 항공 우주 산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내 항공 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릉시 미래 항공사업 추진 관계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담당자 등 총 36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소재·부품의 미래 항공 산업 적용 방안 논의, 미래 항공 산업 관련 전문 강사 초청 강의,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산업 및 인력양성 성과 공유 및 강원 지역과 국내 항공 산업 전문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구축 논의 등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주축사업인 세라믹 원료·소재 산업의 미래항공 원료·소재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위한 전략 마련을 통해 향후 지역 내 관련 기업의 지속성장과 고부가 가치 창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https://www.mbceg.co.kr/post/111075>

2023년도 기업가정신학회 추계 학술대회 세션운영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기업가정신학회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동주최하는 2023년도 기업가정신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개최된 학술대회에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 관련 세션 운영 및 연구발표를 진행하였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한 이슈 발굴 수행과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갈 것이다.

경남도, 4년만에 개최된 '2023 경남과학대전'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 성황리에 마쳐

경남연구개발지원단



‘BEYOND TOMORROW, 첨단 과학으로 도약하는 경남’을 주제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된 ‘2023 경남과학대전’은 관람객 총 4만 3000여 명이 방문하며,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최종 막을 내렸다.

1999년에 개최된 경남과학대전은 경남지역 최대규모의 과학축제로 청소년들의 과학적 창의력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즐겨 찾는 대표적인 과학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2023 경남과학대전’은 삼성전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전기연구원 등 첨단과학산업을 한 자리에 준비하여 과학인재 육성의 장이 되었다.

개막식에 선보인 ‘김해 분성고’ 최세영 학생의 ‘헬륨 풍선을 띄워 지구를 촬영’한 과학 프로젝트 발표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 우주과학인으로 나아가는 꿈을 보여주며 많은 도민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태림산업, (주)디엔솔루션즈, 두산에너지빌리티, 범한퓨어셀 등 도내 기업 대상, 도내 8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첨단산업 탐방을 실시하여 진로 탐색기회를 얻고, 도내 핵심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경남과학대전에는 총 53개 기관이 참여해 미래과학기술존 등 6개 실내존과 2개 야외존에서 어려운 과학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어른, 아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존에서는 40여 명의 전문인력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직접 교육하고 지원했으며, 융합기술존에서는 증강현실(AR), 동물관찰 체험, 말하고 춤추는 로봇공연 등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선보였다.

인근 부산에서 온 방문객은 “많은 체험행사를 다녀왔지만, 이번처럼 학교, 기업, 연구기관이 어우러지고 체험 콘텐츠가 풍부한 행사는 오랜만이다”라며, “자녀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23 경남과학대전 관계자는 “4년 만에 개최되는 경남과학대전이 경남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첨단과학의 인재육성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라며 “항공우주, 방산, 수소 등 첨단산업의 중심인 경남과학산업을 알리고 미래 과학인재들이 도약하는 체험 현장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no=202310292146165550624>

경남테크노파크-LG전자,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협약 체결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11일 LG전자와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기술 고도화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실행 계획 수립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지원 사업 운영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 기술지원을 통한 제조 경쟁력 향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G전자 김병수 동반성장담당은 “경남TP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사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10130003>

경북과학기술정보서비스(GBTIS) 구축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경상북도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관련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하고자, 지역 R&D 종합플랫폼인 ‘경북과학기술정보서비스(이하 GBTIS)’ 시스템을 구축한다. ‘GBTIS’의 주요서비스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연구혁신 통계 정보, 분석 정보, R&D 공고, 발간물 등 과학기술 정책 자료, 지역 혁신자원 정보의 제공이다.

경북연지단은 이번 ‘GBTIS’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R&D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추가적인 고도화 작업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 R&D 사업·과제·성과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gbtis.re.kr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 과학과 산업 R&D컨트를 타워 본격 가동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 과학기술과 산업 융합체계를 조성하고 기초연구부터 산업진흥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자 광주과학기술 진흥원과 통합을 추진하였다.

한편 지역과학기술진흥 발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지속적인 지역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본부(1본부 3팀)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진흥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테크노파크의 인적, 물적 역량을 결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로부터 R&D전담기관으로 재지정 받았다

특히, 이번 광주광역시로부터의 지역 R&D전담기관 지정은 광주테크노파크가 과학과 산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선도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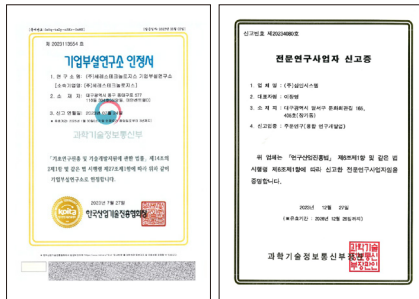
이에 대한 결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의 단계평가 결과로 「우수」 수행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당시 평가관계자 또한 “과학기술과 산업을 연계한 우수한 결과와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지역별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하는데 있어 광주테크노파크(광주연구개발지원단)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의 국가전략기술중 특화된 전략기술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과 산업을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행함으로써 과학·산업 통합 거버넌스 활성화 및 장기적인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성과 창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매년 지역의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역유치 확대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을 도와주는 전문자문위원을 파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23년 지원사업을 통해 62개의 기업에 170회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연구소 및 전담부서 36개사, 전문연구사업자 2개사 설립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종료 후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만족도 조사 결과 '22년 만족도 조사 점수 대비 사업 지원내용 만족도 항목에서는 0.1점 상승 및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받았으며, 참여기업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조직 참여인력 R&D 역량강화교육 제공과 후속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문가 컨설팅도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확대 지원사업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기업 R&D 역량강화 및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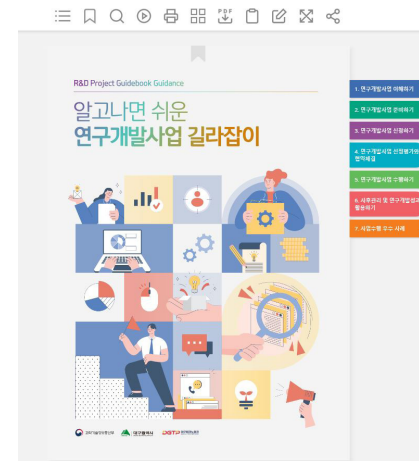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 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에 필요한 전문가의 컨설팅과 인증수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23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총 19건의 인증이 완료되었다.

전년도 참여기업의 후속지원을 위해 올해 도입한 R&D기획 컨설팅지원원은 과제별 R&D기획전문가와 1:1 매칭을 통해 기술성, 사업성, 보유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업맞춤형 R&D사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3개 과제가 지원받아 과기부, 중기부, 대구시 연구개발계획서를 준비하여 차년도 R&D에 도전할 예정이다.

2023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사업 성과 창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대구지역의 10대 산업 집중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미래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2023년 지역기업 신사업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분석을 위해 선정평가를 통해 4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4개의 과제는 ▲하이브리드 CVD 기술시장 분석 ▲DTRO 기술시장분석 ▲자동차 조명 시장분석 ▲친환경 점착제 기술시장 분석이며, 상기 4가지 과제들의 산업/시장/기술 동향 조사결과 및 사업화 타당성 분석 및 전략 도출 등으로 구성되어 완성된 보고서는 기업에 제공되었다.

작년 기준 13.125억원 사업화 매출 발생 및 20명의 고용 창출의 성과를 보인 만큼 올해 지원사업에서도 매출액과 고용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등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과학기술혁신세미나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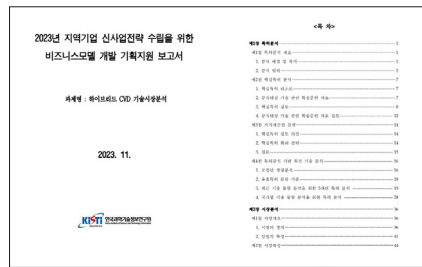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대구의 의료 플러스 로봇산업의 가능성: 치료·수술·재활로봇」을 주제로 지역 미래산업인 의료와 로봇산업 분야의 융합연구 동향 파악과 지역 미래산업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2023년 지역과학기술 혁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센터의 진행으로 ▲진상록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송원경 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장, ▲최홍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최승호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좌장으로, 송대규 계명대 의과대학 교수, 김경대 대구한대 재활치료학부 교수, 임화진 (주)로보스 이사, 이현지 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기획센터장이 참여하여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전략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대구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BB, 반도체, 로봇, UAM,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업 간의 중개연구, 전문가 교류 등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의 혁신전략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고나면 쉬운 연구개발사업 길라잡이 개편 및 배부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R&D 수행주체를 대상으로 R&D의 수행 단계별 주요 사항의 전달을 통한 실무지원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사업 길라잡이를 2011년 최초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현재는 내용물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정보전달 방식이 용이하고, 범위가 넓은 온라인화 추진으로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DTIS)에 eBook 형태로 서비스 중이다.

23년 개편에서는 기존 배포판 수록 내용의 실시간 수정·보완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연구개발사업 관련 최신화 정보전달과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eBook 기능 개선 및 디자인 리뉴얼을 새롭게 개편하여 진행되었으며, 개편 후 책자 인쇄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배부하여 길라잡이 홍보와 활용성을 높였다. 이번 길라잡이 개편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수행 주체의 관련분야 정보접근성 향상 및 연구개발 수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 뉴스레터(DTalks) 서비스

대전연구개발지원단



- 대전시 4대 핵심전략산업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산발된 정보 취합 및 제공
- 정책·산업·기업·기술 관련 전문지식과 정보를 생성 및 공유하여 연관이관 구성원에게 온라인 뉴스레터 배포
- 뉴스레터(DTalks) 월간 정기발행 및 온라인 발송 추진, 매월 대전시 4대 핵심전략산업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구분	6월호	7월호	8월호	9월호	특별호	10월호	11월호	12월호
주제	전략 산업 소개	국방	우주	바이오	통합 포럼	나노·반도체	DISTEP 성과	전략 산업 성과

노벨물리학상 수상 케틀리 MIT 교수, 세종시 특강

세종연구개발지원단



노벨상 수상자 볼프강 케틀리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세종에서 열린 원형 거울 특별강연에서 양자과학의 이해를 통한 미래 투자 가치, 미래인재 양성 등을 강조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9일 열린 원형 거울특강에는 4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자산업 육성 공동선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특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작년 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세계 양자과학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MIT와 하버드대 교수진을 만나 양자 인재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첫 성과물이기도 하다. 케틀리 교수는 극저온 원자로 구성된 양자 기체 시스템(양자 시뮬레이터)의 창시자다.

1995년 극저온 원자기체로 구성된 보즈-아이슈타인 응집체를 구현해 2001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날 특강에선 ‘양자과학기술과 미래’를 주제로 아직은 생소한 양자과학기술이 미래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연했다.

케틀리 교수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양자과학”이라며 “보즈-아이슈타인 응집체 구현 이후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초전도체, 양자컴퓨터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자과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러 산업으로의 확장, 국제적 협업이 가능하며 더 넓게 협력하면 이 분야를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대학생, 박사후 연구원(포닥) 등 꾸준한 인재 양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볼프강 케틀리 교수는 “모든 연구에는 젊은 학생들, 연구원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과학의 미래”라며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과 같은 나라가 교육과 연구에 투자한다면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 결과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양자과학 기술의 상용화 시기와 미래산업 전망 등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시는 윤석열 정부의 양자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미래전략산업 가운데 양자산업을 지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세계지식포럼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미국 큐에라컴퓨팅, 카이스트 (KAIST)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특강을 원형 거울 분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미래인재 육성 기반 마련을 통해 양자과학기술 거점도시 원형빌리지의 꿈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정부의 양자경제 국가비전과 연계해 양자과학기술 거점도시, 원형빌리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글로벌 원형도시 세종시의 비전과 전략을 응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0_0002587592&cID=10818&pID=10800

보도자료 세종시청 - 보도자료

동남권 광역 연계형 협의체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12월 6일 부산에서 동남권(부울경) 연계형 협의체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동남권 광역 연계형 협의체 성과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성과공유 세미나에서는 ‘23년 협의체 운영 현황 및 분과별(정책 연구, 사업발굴, 조사분석) 도출된 성과를 공유하고, ’24년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연구 분과는 ‘부울경 산업구조 진단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사업발굴 분과는 부울경 연계협력(센터 및 반도체모듈) R&D과제 신규R&D사업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분석 분과는 ‘부울경 이차전지 여건 및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동남권 이차전지분야 산업·정책·R&D(논문/특허)·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24년에는 부울경 연지단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부울경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교류 및 협력 체계 마련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과학기술혁신연구회 성과공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인천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혁신연구회 성과공유 세미나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 및 토론회는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운영한 ‘인천과학기술혁신연구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천의 연구개발 발전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개최됐다.

‘인천 과학기술혁신연구회’는 인천시 6대 전략산업 중 4가지 분야(로봇, 바이오, 디지털·데이터, 반도체)를 정한 뒤, 분야별로 전도유망한 전략기술 통 18건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전략기술을 ‘24년 인천광역시 자체 연구개발과제로 공고할 예정이다.

성과공유 세미나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산업 분야별 연구회 위원들이 참여해 인천의 연구개발 발전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고사이트 보도자료 <https://www.itp.or.kr/intro.asp?tmid=15&seq=7959>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 개소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는 11월 29일 화이트 바이오 산업 등 전남 친환경 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여수시 여수국가산단내 미래혁신지구에 구축한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전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전남도의원 및 여수시의원, 신동준 Katri시험연구원장, 최상환 전남화학산업협회장, GS칼텍스, 남해화학 등 지역 화학기업 40여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화학센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인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국비 60억 원, 지방비 106억 원과 민자 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8억 원을 들여 부지 4,743㎡에 건축연면적 2,090.21㎡(지상 2층) 규모로 구축하였고, 18종의 친환경 화학산업 핵심 장비를 구축하여 지역 화학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친환경 화학산업으로 전환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친환경 화학산업은 바이오매스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기반으로한 화이트바이오산업과,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의 온실가스 다배출 화학산업을 탄소저감 산업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산업 개념이다.

친환경 화학의 중심이 되는 화이트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전망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 받으며, 특히, 농·어업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전남은 지역 중소기업과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센터를 중심으로 생분해·바이오 소재, 생분해 멀칭필름, 생분해 부표 등을 개발 완료 하였으며, 지역 중소기업과 자동차 부품, 가전용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친환경 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23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통해 Katri 시험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 함께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 및 인증 기반구축사업을 수주 하였고, 해양 생분해 실환경 분해 실증 기반구축, e-Fuel, 바이오 항공유 실증 등 다양한 친환경 화학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남화이트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국내 친환경 화학산업의 중심 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화학산업센터는 전통적인 화학산업을 친환경 화학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마련을 목표로 설립된 센터’로 ‘다양한 친환경 화학관련 국가 사업 유치’를 통해 전남의 친환경 화학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라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6633>

전남테크노파크, ‘수송기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조성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 신금속산업센터는 7~8일 이틀간 여수 JCS호텔에서 수송기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조성사업 성과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수송기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마그네슘 소재부품 상용화 촉진 및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56억원을 투입해 실증화 전용공간 구축, 신규장비 구축 및 장비성능개선, 시제품제작지원, 기술지도, 시험분석지원, 가치사슬연구회 등을 수행한 프로젝트다. 마그네슘 소재는 구조용 금속재료 중 가장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비행기, 자전거 등의 경량화에 효과적인 소재로 높은 비강도와 진동감쇠능·절삭성·전자파 차폐효과·방열특성이 우수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마그네슘 관련기업 17개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순천시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보고회, 시제품 전시회, 기술세미나, 토론회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시제품 제작지원을 받은 5개사의 우수사례 발표로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고 마그네슘 산업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인경금속은 마그네슘 신합금을 적용한 항공기 화물용 팔레트의 프레임 제작하여 기존 제품대비 20% 이상 경량화를 실현했고, 항공기 1대 적재 기준으로 총 3톤 이상의 무게절감 효과가 있어 향후 국토교통부, 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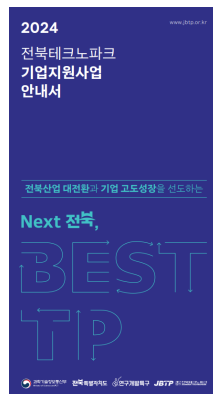
모베이스다이캐스팅의 경우 차량에 장착되는 토크센서 커버, 기어박스, 랙&피니언을 마그네슘 신합금으로 제작해 내식성이 우수하고 우수기준 제품대비 34%이상의 경량화를 실현해 향후 수요처 차량 장착테스트 예정이다.

매시브랩의 경우 장애인 아이스 하키용 장비 프레임, 스케이트 블레이드 홀더를 마그네슘 합금을 적용하여 33% 경량화를 실현했다. 실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착용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골프용 퍼터 샤프트를 마그네슘 합금으로 적용한 시제품은 프로선수를 통한 평가에서 만족도가 높아 새로운 제품분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차량·항공·반도체·로봇·전자제품·건축·방열·자전거·스포츠 등 9개 분야 37개 시제품을 행사장에 전시해 마그네슘 개발제품 정보와 기술교류를 실시함으로써 마그네슘 연관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마그네슘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송기기 경량화의 핵심소재로 전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마그네슘 산업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갖춘 마그네슘 선도기업 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etnews.com/20231212000424>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지원사업 안내서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2024년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안내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기업지원분야 R&D 및 비R&D지원사업에 대하여 도내 소재한 산 학 연 관이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북연구지원단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안내서이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서는 R&D 수행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지원사업 정보가 제공되어 도내 소재 기업 및 기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서 R&D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맞춤형전략이 제공되는 금번 안내서를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 R&D통합설명회 개최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지난 2월 14일에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R&D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금번 통합설명회에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현장 설명회로 도내 산·학·연·관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캠퍼스종합기술원,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등 11개의 혁신기관에서 43개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

특히 올해 통합설명회에서는 투자유치형 R&D, R&D 연계형의 신규 유형과 더불어 에너지, 자동차소재 등 폭넓은 산업군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분야 R&D지원으로 지역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를 주관한 전북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그동안 지속 성장해온 농생명 산업, 미래수송기계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4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애포럼) 개최

- (부재) 충남 항공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항공우주용 반도체 연구 -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도는 '23년 12월 21일, 천안 신불당아트센터에서, 충청남도 주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주최로 '제24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우준, 김태효 선임연구원의 발제를 토대로, '충남 항공우주 사업 성장을 위한 우주용 반도체 연구' 현황과 발전 방향, 향후 충남도의 사업 연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첫 번째 발제는 '항공우주용 반도체 부품 소개(이우준 선임연구원)'로, 우주선에 필요한 우주용 반도체 부품의 종류, 국내·외 항공우주 반도체 연구 및 개발현황, 충남도의 우주용 반도체 발전 방향이 논의되었다.

두 번째 발제는 '우주방사선 환경 및 반도체 부품들에 대한 영향성'으로, 우주환경에서 방사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Displacement Damage, Single Effect 등의 현상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반도체 개발 연구방향을 소개했다.

‘항공우주 반도체’ 분야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분야로,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공위성, 궤도선, 탐사선 등 우주 환경에서 동작하는 우주용 반도체 부품의 비용, 신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국내 유일, 국제 표준 인증(MIL QPL)을 획득한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우주용 반도체 부품 생산의 상용화 등 현실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사이트 <https://www.youtube.com/live/LEoQXmQk4-k?si=wa5kYl11Bdi8Uj9J>

충북과기원,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 앞장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 분야 혁신을 위해 나선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하 충북과기원)은 9일 충북대학교 미래 자동차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 분야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을 토대로 ▲기술개발(R&D)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산학교류 멘토링 운영 ▲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 교육 훈련 ▲전문 인재 채용 연계 등을 진행한다.

고근석 충북과기원 원장은 취임 후 첫 업무협약식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세계적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과기원은 ▲자동차 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자동차 부품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R&D 및 비R&D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보도자료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88>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GBSA Daily Report 배포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매일 배포를 진행하고 있는 GBSA Daily Report를 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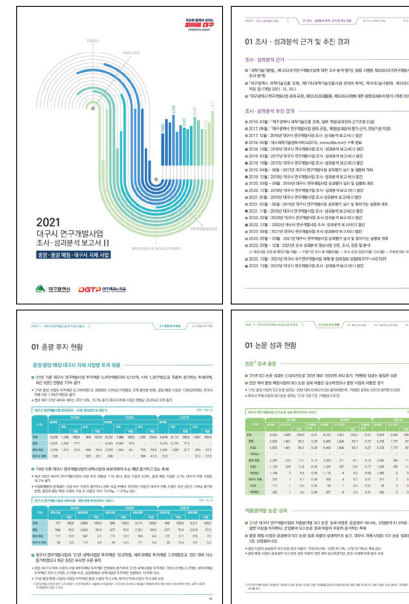
추후 GBSA Daily Report 서비스에 이어 월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GBSA 월간 헤드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정보제공을 위해 진행되는 GBSA Daily Report는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GBSA Daily Report’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www.gbsa.or.kr/board/daily_trend.do
http://pf.kakao.com/_xcxexdyxj/friend

2021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보고서(II) 발간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2월 2021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보고서(II)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앙 매칭 및 대구시 자체 사업의 투자·성과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보고서(I)과는 다르게, 대구시에 투입되는 중앙, 중앙 매칭, 대구시 자체 사업에 대한 투자와 성과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 반영되어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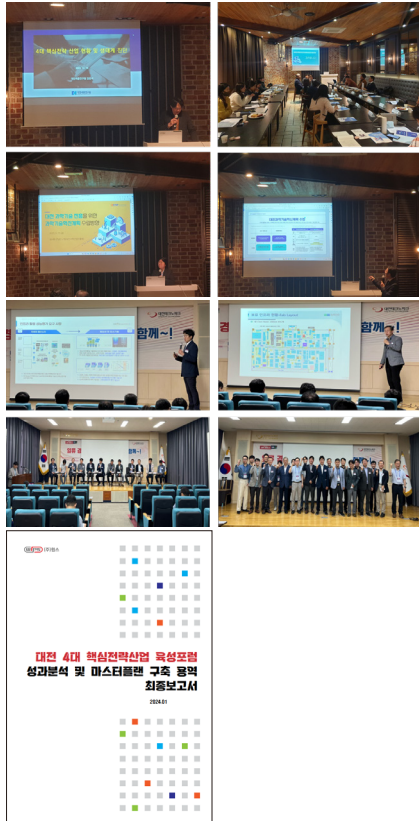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의 총투자는 9,479억원(국비 8,112, 시비 1,367억원)으로 중앙 매칭 및 대구시 자체 사업 투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연평균 7.5% 증가하였으며, 성과는 SCI논문 2,024건, 특허 2,550건(출원 1,674, 등록 876), 기술이전 480건(기술료 189억원), 사업화 건수는 2,733건으로 나타내었다.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보고서(II)를 통해 대구시 전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성과 현황을 제공하여 지역 과학기술진흥·지역 산업육성 분야 및 지자체가 정책기획, 기업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사이트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dtis.re.kr)-발간자료-조사분석보고서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포럼 성과분석 및 마스터 플랜 구축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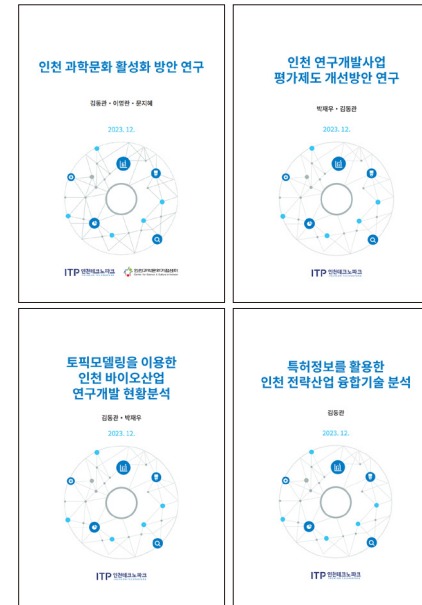
대전연구개발지원단



-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포럼 운영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전략산업 이슈의 체계적인 분석 수행
-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포럼의 운영결과와 종합적인 현황과 성과분석을 통해, 미흡한 한계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
- 핵심전략산업별 솔루션 발굴 및 프로그램화를 통한 단/중기 마스터 플랜 구축
- 단 중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추진전략 및 성과 목표 설정

2021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보고서(II) 발간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인천연구개발지원단은 2023년 4가지의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 ① 인천 과학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② 인천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③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인천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현황분석
- ④ 특허정보를 활용한 인천 전략산업 융합 기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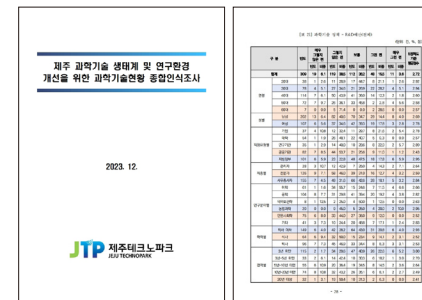
발간물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itp.or.kr/intro.asp?tmid=362>

제주 과학기술 정책보고서 발간

(주제) 「제주 과학기술 생태계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분야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23년도에는 정책보고서(「제주 과학기술 생태계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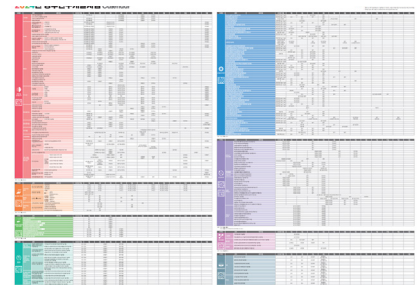
보고서 기획배경은 제주지역의 R-COSTII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보고서에는 과학기술 정책, 혁신주체 및 연구환경, 혁신활동, 성과활용·확산의 4개 부문, 7개 세부항목, 총 38개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주도내 과학기술현황 종합 인식수준에 대한 종합 분석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지자체와 현장과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현장에 반영, 제주지역의 과학기술 생태계 및 연구환경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2024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캘린더 제작 및 배포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부처별 R&D시행계획을 종합하여 2024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캘린더를 포스터 형태로 제작하였고, 캘린더가 필요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PDF파일을 서울테크노파크, STIS(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선착순 100명에 한해 모든 부처의 2024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캘린더 인쇄본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Bric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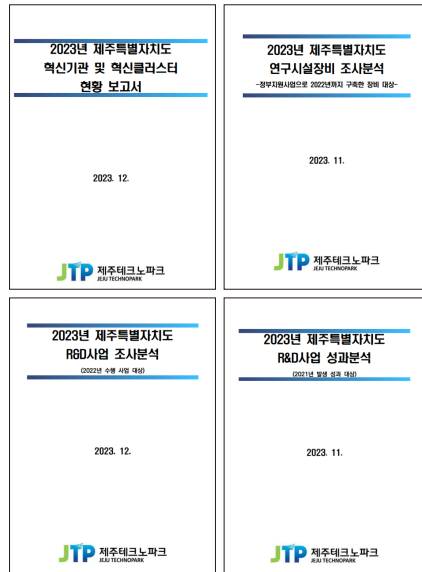
해당 캘린더는 부처별 2024년 신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사업 분야 및 세부사업 목록, 사업일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정부연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캘린더는 서울테크노파크, STIS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url.kr/bvr54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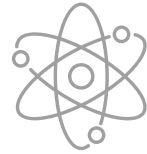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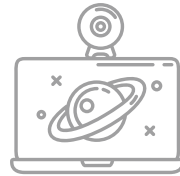
제주지역 조사분석 보고서 4종 발간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지단은 지난 12월, 제주지역의 과학기술분야 혁신역량과 기추진 중인 R&D 분야 현황 및 발생성과를 파악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현황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R&D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R&D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총 4종)를 발간하였다.

본 조사분석 보고서는 연구개발주체 간 정보 공유 및 지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04 R&D 성공사례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추진
 충북연구개발지원단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추진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과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도내에 소재하는 기술과 제품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R&D사업으로써 2020년부터 약 40억(충북도)의 예산으로 총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년도	과제명	기업명	지원금 (천원)
1	2020년 (11개)	안전장치를 부착한 충전용 전지 가위 국산화 개발	아임삭	167,000
2		설비고장유무파악을 위한 산업용 스마트알람시스템 개발	명성에이엔티	193,500
3		초고화질 OLED TV 방열소재 개발	퓨어만	172,000
4		가상현실 기반 맞춤형 정장피팅 및 시침질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예쉬컴퍼니	197,000
5		복수개의 센서를 지원하는 ROIC개발	파인디어칩	91,900
6		Gas 잔류 수분 함량 및 성분 분석 실시간측정 모듈개발	선반도체	88,800
7		멀티 프로토콜 지원 IoT 게이트 웨이 개발	임베디드솔루션	95,500
8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RFID 리더기 및 8채널 유무선통신 HUB개발	이앤씨	100,000
9		신재생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RTU개발	세화에너지산업	80,000
10		스마트폰을 활용한 포터블 가시형 먼지 검사기 제작	나인	90,500
11		반도체 제조용 열처리설비 공정제어 장비 개발	세미트로닉스	80,000
12	2021년 (7개)	AI기반 NGS데이터를 이용한 STR마커 탐색 SW개발	(주)코아아이티	100,000
13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진단용 다중센서모듈 및 스마트 예지보전 시스템 개발	(주)명성에이엔티	100,000
14		관리자 기능분리를 통한 공공기관용 웹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고도화 개발	(주)한신정보기술	100,000

	년도	과제명	기업명	지원금 (천원)
15	2021년 (7개)	신뢰 기반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AMI 양방향 원격검침기술 개발	신일전기공업(주)	100,000
16		ICT기반 저비용 엘리베이터 실시간 원격감시 점검 시스템 개발	(주)보아스에스이	100,000
17		5G ICT 레퍼런스 보드 개발	(주)라운솔루션	100,000
18		반도체 제조 Smart Factory 운영에 최적화대 RPA 솔루션 개발	(주)디엘정보기술	100,000
19	2022년 (3개)	방산 선박 디젤 엔진용 실린더라이너(CylinderLiner)개발	유성기업(주)	200,000
20		초연결 지능형 플랫폼 연결고리 Class Fa (CAT7a)케이블 개발	(주)토마스엔지니어링	200,000
21		구동 메커니즘 최적화를 통한 800A 자동절체스위치 개발	산전정밀(주)	200,000
22	2023년 (4개)	SaaS와 IoT기반 조리실 제어 및 운영 시스템 개발	(주)세노텍	150,000
23		화장품 원료 제조 현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형 스마트 MES시스템 개발	(주)젠텍	150,000
24		전기차용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향상을 위한 음극재용 SWCNT/그래핀 하이브리드 도전재 개발	(주)서현테크켄	150,000
25		PBL중심 창의융합 교구재 및 언택트 스쿨 동영상 활용한 클라아드 환경의 표준 API형 디지털 교과서 개발	(주)채움플러스	150,000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대전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과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기업은 연평균 매출성장률, 수출액 비중, 고용 증가율 등 1차 역량평가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성과창출, 개발능력 등 2차 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매년 3개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보유한 기술·제품의 성능향상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 근본적인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후속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기업·기술 주요 사례>

① ㈜한신정보기술(관리자 기능분리 통한 공공기관용 웹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한신정보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행정의 스마트 혁신분야에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 업체가 개발한 '관리자 기능분리 통한 공공기관용 웹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비상업용 웹사이트 관리업무에 대한 다양한 관리도구를 제공하는 통합 웹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CMS)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가 점차 통합형으로 운영되면서 이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인증하는 GS시험에도 통과했다. 현재 동대문구청과 은평구청, 하남시청 등 서울과 경기, 강원권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10여곳에 납품하고 있다.



② 유성기업(방위산업 선박 엔진용 실린더라이너)

유성기업(주)은 방위산업분야 소재의 국산화 기술로 선정됐다. 이 업체는 방위산업 선박 엔진용 실린더라이너'를 개발중이다. 최근 국산 전투장비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들 장비의 소재 부품 국산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성기업은 지난해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주포용 실린더라이너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 유성기업은 이 경험을 토대로 극한의 전투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산 선박용 고마력, 고효율, 고신뢰성을 갖춘 선박용 실린더 라이너를 개발했다. 개발된 제품은 구축함 고속정 잠수함 등 각종 전투 함정의 추진 발전용 엔진에 장착되고 있다. 이번 기술개발로 원천기술 확보 및 국내생산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 전투함 수출 시 엔진 소재 부품의 라이선스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국내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엔진 부품 공급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04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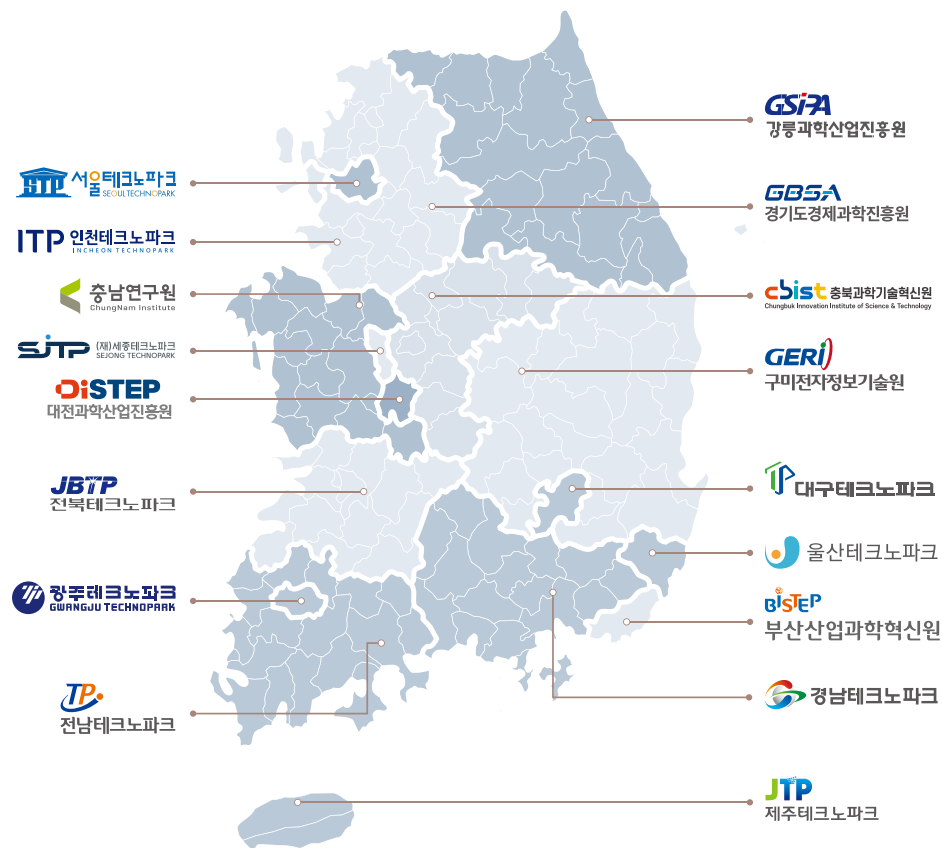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사업 투자 및 성과의 통계를 체계화하여 각 산·학·연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 투자, 성과 등 각 지역의 R&D 분야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역 연구개발분야의 지식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	강원도연구개발사업정보서비스	rnd.gsipa.or.kr
경기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gtis.gbsa.or.kr
경남	경남 연구개발 조사·분석 정보제공 시스템	gctis.gntp.or.kr
광주	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gjtis.gjstec.or.kr
대구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dtis.re.kr
대전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daon.distep.re.kr
부산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	btis.bistep.re.kr
서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준비중)
세종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울산	울산R&D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	rnd.utp.or.kr
인천	인천R&D정보시스템	irds.itp.or.kr
제주	제주지역R&D통합관리시스템	-
전남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jntis.jnsp.re.kr
전북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rnd.jbtp.or.kr
충남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cnstis.net
충북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researchweb.cbist.or.kr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033.650.3320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554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445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54.479.2217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062.609.0411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76
대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042.865.0511
부산	부산산업과학혁신원	051.795.5023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02.944.6072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35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219.0852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18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33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749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063.260.9322
충남	충남연구원	041.540.3807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043.210.0862



2024 Vol. 23

ISSUE & FOCUS